

# 1세대 한류 TV 드라마 <겨울연가>에 나타난 신파성

Elements of Shinpa in the First-Generation Korean Wave TV Drama <Winter Sonata>

강성애\*

**국문초록** 이 글은 TV 드라마 <겨울연가>를 'K-신파'의 시작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1세대 한류 드라마의 인기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명하는 동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을 '신파'라는 틀 안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다.

신파의 중요한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비애(悲哀)의 성격을 지닌 슬픈 정서가 주를 이룬다. 둘째, 모순적인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셋째,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위의 세 특성을 <겨울연가>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위의 특성들로 인해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큰 흥행을 이룰 수 있었다. 신파적 요소가 일본 관객들의 감성에 잘 맞았던 것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파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겨울연가>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잊고 있었던 신파적 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신파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에 자랑스러운 개념으로 다시 정립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1세대 한류부터 신파적 작품들을 '신파'라는 틀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1세대 한류, TV 드라마, <겨울연가>, 신파, K-신파

- 차례**
1. 들어가며
  2. 이울배반 혹은 순응적 태도에서 온 비애(悲哀)
  3. <겨울연가>를 통해 과거의 신파를 떠올린 일본
  4. 나가며

K-드라마, K-영화 등 'K-'라는 접두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현재 K-콘텐츠와 스타일은 일시적인 흐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존재 양식으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sup>2</sup> 이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K-콘텐츠가 가진 인기 비결이

## 1. 들어가며

한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한류라고 불리는 '한류 4.0'의 시기로 접어들었다.<sup>1</sup> 이 시기 한류의 특징은 전 세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K-팝이나

\* 경민대학교 교양과 강사

1 한류는 1997년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한류라고 불린 '한류 1.0'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한류인 '한류 2.0'을 지나,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이전까지 K-culture로 대표되는 '한류 3.0'을 거쳐 2020년 이후 '한류 4.0'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1980년대까지는 세계의 변방 문화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의 대중음악, 드라마 등을 즐기면서 '한류'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지역을 넘어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문화로 성장하였다.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한류는 K-culture, K-contents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태일·연정례, 「한국 사회에서 K-culture의 효과」, 『한국과 세계』 6(4), 한국국회학회, 2024, 6~9쪽.

2 김현식, 『김현식의 K콘텐츠 혁명』, 미디어샘, 2023, 15~16쪽.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K-신파'이다.

한국 콘텐츠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한국 작품은 감정을 자극하고, 주인공의 서사를 쌓아 올려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sup>3</sup> 작품 속에서 가족, 친구와의 끈끈한 우호적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특히 감동적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sup>4</sup> 이런 반응은 한국인들에겐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에서 신파는 종종 부정적 요소로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과 정서가 최대한 제거된 작품이 많은 외국에선 오히려 한국의 신파 콘텐츠가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다.<sup>5</sup> 외국 시청자들에게 'K-신파'가 그동안 자신들이 봐 왔던 것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매력적인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 '신파'를 새롭게 정의하고 신파의 역사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념 정리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던 '신파'라는 단어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런 시대적 부름에 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류를 이끈 작품 중 신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TV 드라마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세대 한류 작품 중 신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으로 2000년대 방영된 TV 드라마 <가을동화>와 2002년 방영된 TV 드라마 <겨울연가><sup>6</sup>가 있다. 이중 <겨울연가>가 <가을동화> 보다 더욱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한류의 신파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겨울연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겨

울연가>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신파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흐름을 만든 선구적 작품이다. <겨울연가>에 영향을 받아 생성된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겨울연가>에는 사랑 이야기에 깊은 애정뿐 아니라 감정적 고난이 동시에 펼쳐진다. 이와 같은 운명적 사랑과 그로 인해 겪는 시련은 이후 한류 드라마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사로 자리 잡게 된다. <겨울연가>에서 고난의 요소로 사용된 '기억 상실' 설정 역시 이후 드라마에서 빈번히 사용되었다.

둘째, 설경(雪景)과 같은 자연 배경을 감정 연출의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감성적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이와 같은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배경 연출은 이후 <여름향기>, <봄의 왈츠> 등으로 이어지며 사계절을 테마로 한 한류 드라마 시리즈가 나오기도 했다. 자연을 통해 인물의 감정과 서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은 이후 작품에서 신파적 분위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다.

셋째, <겨울연가>에서 OST는 드라마의 감정적 여운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한류 드라마들이 음악을 통해 감정적 울림을 전하는 방식을 선도했다. <태양의 후예>, <도깨비>,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인기 한류 드라마들에서도 OST는 극의 감정을 배가시키며 신파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겨울연가>가 이후 K-신파 장르의 특징들을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신파적'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에 집중한 연구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일본 내 <겨울연가>의 인기 요인으로 영상미와 음악만을 손꼽았다. 죽음과 기억 상실 등과 같은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던 식상한 요소들이나 시청자들이 피곤하게 느낄 정도로 반복되는 사랑의 장애 요소들이 있음에

3 「K-신파를 왜 좋아할까? 한국식 신파를 맞본 외국인들의 찐 반응」, 스타스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fq4ndvFKvLw>

4 방호정, 「세계를 울리는 'K-신파'의 영향력」, 『국제신문』, 2021.12.01.

5 이루라, 「신파가 K 드라마의 성공 요인」, 『TV CHOSUN 뉴스』, 2023.5.25.

6 <겨울연가>, 윤은경·김은희 극본, 윤석호 연출, KBS2, 총 20부작, 2002.01.14.~2002.03.19.

도 영상미와 음악 덕분에 인기를 끌 수 있었다는 식의 분석이었다.<sup>7</sup>

이들은 드라마의 서사를 분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파적 요소들에 대해 기술하면서도 그 요소들을 ‘신파’라는 틀로 바라보지 못했고 신파적인 요소들을 인기 요인과는 상관없는 부정적인 요인으로만 치부해 버렸다. 당시 ‘신파’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그렇게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사는 드라마를 연구하는 데 있어 ‘신파’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신파’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시대에 따라 ‘신파’가 지칭하는 대상도 계속 변화했고 ‘신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도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신파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차원의 의미들을 한데 뒤섞어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목표와 초점을 설정하여 연구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진행해야 한다.”<sup>8</sup>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내린 신파 개념 정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현재 “K-신파”에서 “신파”가 함의하는 뜻을 담기에 적합한 개념을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정리하자면, ‘K-신파’가 ‘K-콘텐츠’의 인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겨울연가〉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겨울연가〉를 “K-신파”의 시작점에 위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고 이 드라마에 나타나 있는 신파적 요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해낸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것이 어떻게 1세대 한류 작품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인기 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2002년에 방영된 〈겨울연가〉의 인기 요인을 현재적 시점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인 동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을 ‘신파’라는 틀 안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 2. 이율배반 혹은 순응적 태도에서 온 비애(悲哀)

신파의 개념은 크게 우리나라에서 신파극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당시 존재했던 ‘일본에서 넘어온 신파극’<sup>9</sup>을 지칭하는 것과, 연극을 넘어 TV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영상 매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파적 작품에 대해 논할 때 사용하는 ‘신파’로 나눌 수 있다.<sup>10</sup> ‘K-신파’는 연극을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에 후자의 개념을 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연극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신파의 경우 그 자체로 비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흔히 ‘촌스럽다’라는 말로 통칭되는, 이미 낡아 어색해진 질감의 비극성을 유난히 과장되게 드러내는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sup>11</sup> 한 것이다. 하지만 이호걸은 신파의 개념을 정립할 때 가치 평가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속성, 미적 미숙함 등의 뜻으로 신파를 규정하는 것은 신파의 구체적인 질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sup>12</sup> ‘K-신파’는 현재 외국 시청자들에게 미적 미숙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호걸의 주장처럼 비하의 의미로 ‘신파’를 사용하는 것은 한류의 주역으로서의 ‘신파’를 논의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드라마, 영화,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파에 대해 비판적 의미는 배제하고 신파 양식에 공통된 “핵

7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8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17쪽.

9 유민영은 『매일신보』가 1912년 2월 15일 자에 보도기사를 내면서 신파극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다고 말한다.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신론 상권』, 태학사, 2011, 28쪽.

10 이승희, 「기표로서의 신파, 그 역사성의 지형」, 『한국극예술연구』 23, 한국극예술학회, 2006, 4~12쪽.

11 이영미, 앞의 책, 같은 쪽.

12 이호걸, 「신파양식 연구: 남성신파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17쪽.

심적인 무엇”을 밝히고자 했던 연구에는 강영희, 이영미, 이호걸 등의 논의가 있다.<sup>13</sup> 이 글에서는 이영미의 이론에 기대어 ‘신파’를 정의하고 그 틀로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영미의 분석 틀이 가장 정교하기 때문이다. 이영미는 신파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다. 또한 신파 작품이 가진 구조적 특징은 7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위의 연구자들 중 가장 구체적인 정리로 신파 작품들을 분석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영미가 신파의 특징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의 정서인 ‘비애(悲哀)’이다. 이영미에 따르면 신파극에서는 슬픔의 정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의 슬픔은 비장(悲壯)이 아니라 비애이다. 비장은 대체로 영웅적 주인공에게서 발생한다. 자신의 가치나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패배와 죽음을 맞이하는 영웅이 만들어 내는 미의식이 바로 비장이다. 이와 다르게 비애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오순도순 살고 싶다는 등의 서민적 욕망의 좌절로 인해 생긴다. 이런 욕망은 인간에게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강한 고통과 슬픔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sup>14</sup> <겨울연가>에 나타난 정서 역시 비애이다. 특히 <겨울연가>에 나타나는 비애는 애정 욕구의 좌절로 인해 발생한다.

<겨울연가>는 상혁(박용하 분), 유진(최지우 분), 준상(배용준 분), 채린(박솔미 분).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혁과 유진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으로 상혁과 유진은 어려서부터 남매처럼 자랐다. 상혁은 유진을 여자로 좋아하지만 유진은 상혁을 친구로만 생각한다. 어느 날 준상이 이들의 반에 전학을 오고 채린은 준상에게 첫눈에 반한다. 여러 사건을 통해 유진과 준상은 사랑에 빠지고 상혁과 채린은 상처를 받는다. 이 모든 일

들은 18살에 일어난 사건이다. 갑자기 준상이 죽고 드라마는 10년 후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드라마의 특징은 중심인물들이 모두 애정 욕구의 좌절을 점층적으로 강하게 경험한다는 데 있다. 유진과 준상은 죽음이라는 좌절로 헤어졌다가 10년 후에는 기억 상실, 출생의 비밀, 죽을 병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애정 욕망에 좌절을 겪는다. 상혁과 채린은 18살에 경험했던 연애의 좌절이 28살에 더 심화된 형태로 진행되다가 결국 완전히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표1> 비애를 중심으로 한 서사

| 이름     | 각인물간비애(悲哀) 상황의 점층적 서사 |  |
|--------|-----------------------|--|
| 상혁     | 18살                   | 자신이 좋아하는 유진이는 준상을 좋아한다.  |
|        | 28살                   | - 유진과 약혼했지만 준상을 닮은 민형에게 유진을 뺏긴다.<br>- 유진과 결혼을 준비하지만 민형이 기억을 잃은 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진이 준상에게로 간다.<br>- 유진과 준상이 남매라고 생각하고 다시 유진에게 가지만 유진은 혼자 유학을 떠난다.  |
| 유진     | 18살                   | 준상을 좋아하지만 준상은 교통사고로 죽는다.   |
|        | 28살                   | - 준상을 닮은 민형을 사랑하지만 상혁이가 자신을 잃고 상실 감에 죽을 위기에 처하자 상혁에게로 돌아간다.<br>- 민형이 준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준상이와 사귀지만 준상과 자신이 아버지가 같은 남매 사이라는 것을 알고 헤어진다.<br>- 준상과 남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준상이 교통사고 후 유증으로 자신을 떠나자 홀로 유학길에 오른다.<br>- 시력을 잃은 준상과 재회한다. |
| 준상(민형) | 18살                   | 준상은 아버지가 없어서 슬프다.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단란한 가정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 상실감을 느낀다.  |
|        | 28살                   | - 유진을 사랑하지만 유진은 준상이만을 사랑한다.<br>- 유진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지만 상혁이가 죽을 위기에 빠지자 유진을 상혁에게 보낸다.<br>- 유진과 사랑에 빠졌지만 유진과 남매 사이라는 것을 알고 유진을 떠난다.<br>- 유진과 남매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워 유진을 떠난다.<br>- 시력을 잃은 채로 유진과 재회한다.  |
| 채린     | 18살                   | 준상을 사랑하지만 준상은 유진을 사랑한다.  |
|        | 28살                   | - 민형을 사랑하지만 민형은 점점 유진에게 관심을 갖는다.<br>- 유진을 포함하지만 그것이 들켜 민형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br>- 결국 민형에게 버림받는다.   |

위의 표를 보면 <겨울연가>에서 주인공들이 경험하는 애정 욕구의 상실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영미가 신파의 특징으로 뽑은 것은 모순적인 인물의 태도인데, <겨울연가>에도 모순적인 인물의 태

13 이순진, 「조선 무성영화의 활극성과 공연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8, 123~124쪽.

14 이영미, 「신파 양식의, 세상에 대한 태도」, 『대중서사연구』 9(1), 대중서사학회, 2003, 17~18쪽.

도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겨울연가>에는 여주인공의 행동과 마음이 다른 이율배반적 모습이 잘 나타난다. 신파극 작품으로 유명한 <장한몽>에서 여주인공 심순애는 이수일을 사랑하면서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와 이에 순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김중배에게 시집을 간다. 하지만 이수일에게는 “다 제 잘못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한 마디만 들어주세요”와 같은 모순된 말을 한다. 심순애는 언뜻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듯하지만 세계에 압도되어 그 힘에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무력한 인간이며 남들이 고통스러울까 봐 지레 자신이 희생해버리는 여린 심성의 소유자로 등장한다.<sup>15</sup> 심순애와 동일한 태도를 <겨울연가>의 유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민형은 상혁과의 결혼을 앞둔 유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그때 유진은 민형을 거절하면서 “누구도 준상을 대신할 순 없어요” (8화)라고 말한다. 이 대사를 통해 유진이 민형을 거절하는 이유가 상혁 때문이 아니라 준상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은 준상이지만 상혁과 약혼한 유진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다.

순애가 김중배와 결혼을 해도 인물의 내면적 태도에서 그 행위에 대한 나름의 확신 있는 이유를 확보하고 있다면 신파의 느낌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반면, 어려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체의 태도가 신파적이면 어떤 선택을 해도 신파가 된다.<sup>16</sup> 유진은 상혁과 민형 사이에서 갈등한다. 이때 유진은 어떤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상혁을 택하거나, 민형을 택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는 상혁을 택하면 민형에게 미안하고, 민형을 택하면 상혁에게 미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진이 누구를 택하든 신파가 되어 버린다.

결국 유진은 사랑하는 사람은 민형이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상혁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상혁에게로 한다. 그 후로도 유진은 계속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 스스로 민형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민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상혁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억울해하고 항변한다. 그러면서도 막상 상혁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한다.

상혁: 그래, 나 화났어. 내가 왜 화가 났다고 생각해? 내가 화난 건 아직까지 흔들리는 네 마음 때문이야. 너 그 남자 보고 준상이 생각나서 나한테 말 못 한 거잖아.

유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상혁: 그럼, 그럼, 왜 나한테 말을 못 했어.

유진: 나도 말하려고 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 <겨울연가> 3회 중

유진: 너 나 못 믿니?

상혁: 못 믿어. 너 흔들리고 있잖아.

유진: 흔들리는 거 아니야. 상혁아, 그런 거 아니야.

상혁: 그럼 아까 왜 대답 못 했어. 네가 사랑하는 사람 나 맞니?

유진: (말 못 한다.)

(중략)

상혁: 이민형 씨 너한테 뭐니? 네가 정말 그 사람 좋아해?

유진: (말 못 한다.)

- <겨울연가> 8회 중

상혁: 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차피 지금까지 나 혼자 사랑해 온 거잖아.

유진: 상혁아. 너 지금까지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너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니?

- <겨울연가> 9회 중

상혁은 ‘준상/민형’을 사랑하는지 유진에게 물어보는데 그때마다 유진은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한다. 매우 억

15 위의 글, 19쪽.

16 위의 글, 22쪽.

울해하면서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상혁이 그럼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을 때는 정작 아무 대답도 못 한다. 또한 상혁이 유진에게 자신을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진은 매우 모순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태도는 나중에 민형이 사실은 기억을 잃은 준상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에야 변하게 된다.

세 번째로 이영미가 신과 특징으로 뽑은 것은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주인공의 행위인데, <겨울연가>에도 스스로 굴복하는 인물의 행위가 잘 나타나 있다. <겨울연가>의 여자 주인공인 정유진과 남자 주인공 강준상/이민형은 모두 이들의 사랑에 반대하는 세상에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진: 민형 씨는 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젠 준상이 정말 돌아온다고 해도 나 상혁이 떠날 수 없어요. 나 상혁이 선택했어요. 민형 씨도 나 상혁이한테 보내줬잖아요. 이젠. 날 놔줘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중략)

민형: 나 강준상을 포기했습니다. 난 이민형이에요. 이민형으로서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민형으로서 유진 씨 사랑했고 그걸로 충분해요. 기억도 나지 않는 강준상이라는 이름으로 유진 씨 욕심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민형은 이미 오래전에 유진 씨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채로 그렇게 행복하길 바라면서 살겠어요. (중략) 나 곧 미국에 갈 거예요.

- <겨울연가> 13회 중

유진은 18살에 전학 온 준상을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준상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준상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10년이 지나 기억을 잃고 민형으로 살아가는 준상을 만나 준상인 줄 모르고 다시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상혁)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

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유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진숙 모두 상혁과 헤어지려는 유진을 떠난다. 유진의 엄마는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유진을 키웠기에 유진은 더욱더 어머니의 반대에 대항하기 어렵다. “신과성은 부모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다는 효 윤리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주인공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발생한다.”<sup>17</sup> 어머니를 향한 효 윤리가 유진이 스스로 세상에 굴복하도록 했다. 이는 준상도 마찬가지다. 준상의 엄마도 남편 없이 혼자 준상을 키웠다. 따라서 엄마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준상은 유진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다.

결국 유진과 준상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기에 이른다. 특히 유진은 상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는 지경에까지 가게 된다. 상혁이 유진과 한마디 상의 없이 바로 부모님 앞에서 유진과 함께 유학하겠다고 해도 유진은 괜찮다고만 한다. 민형을 만났다고 전해주면서 마음이 어떠한지 묻는 상혁에게 유진은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다고 한다. 이처럼 유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혁과의 결혼을 준비한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라는 태도를 지니면 바로 그 지점에서 신과성이 생긴다.”<sup>18</sup> 유진은 점차 표정을 잃고 혼자 있기만 하면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된다.

나중에 유진이 준상과의 사랑을 선택했을 때 상혁이 준상에게 “유진이 저런 표정 나랑 있으면서는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에요”(16화)라고 말할 정도로 유진은 상혁 옆에서 억지로 참고, 인내하며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영미는 “신과에서는 악하고 강한 인물에 주인공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강한 인물이 없어도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며, 단지 내면으로만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세계의 지배적 질서가 인물 안으로 들어와 성격화해

<sup>17</sup> 이영미, 앞의 책, 54쪽.

<sup>18</sup> 위의 책, 56쪽.

있는 것이다”<sup>19</sup>라고 말한다.

〈겨울연가〉에서 악하고 강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은 유진이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친구들이다. 유진의 굴복은 스스로 순응한 결과이고 세계의 지배적 질서가 유진의 안으로 들어와 성격화된 것이다. 민형은 유진에게 “유진 씨 너무 착한 거 같아요. 너무 착한 거 같다고요”(9화)라고 말하고 채린도 유진에게 “넌 착하긴 한데 너무 우유부단한 구석이 있어서 다른 사람 기분 잘 모르고 행동할 때가 많잖아”(12화)라고 말한다. 이처럼 유진은 사람들에게 착하기는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평가받는다. 이는 유진이 지닌 신파적 태도를 잘 나타내준다. 이런 성격은 유진을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유진은 자신이 준상이가 죽고 나서 내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자신이 준상을 품고 상혁과 약혼을 한 죄, 지금 역시 상혁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민형을 사랑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 한 말이다. 결국 이것은 “속마음이 어떻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저항하거나 해결을 도모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했기 때문에”<sup>20</sup> 발생한 것이다.

정리해 보자면 신파의 중요한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비애(悲哀)의 성격을 지닌 슬픈 정서가 주가 된다. 둘째, 모순적인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셋째,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겨울연가〉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겨울연가〉가 신파가 지닌 전형적인 구조와 공식에 딱 맞아떨어지는 드라마임을 말해준다.

### 3. 〈겨울연가〉를 통해 과거의 신파를 떠올린 일본

이영미는 위의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신파의 서사에 나타난 특질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밝혔다. 이는 이승희의 주장과 연결된 것이다. 이승희에 따르면 “개화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신파극’이란 말은 ‘새로운 연극’이란 뜻으로 쓰였”<sup>21</sup>다. 그리고 새로운 예술이었던 신파극이 미숙한 것은 너무 당연했다. 따라서 1920년 신극이 등장하자 신파극은 통속물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만다. 이승희는 이 과정에서 ‘신파’가 어떤 차별화된 미적 특질로 표상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sup>22</sup> 이영미 역시 이승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미적 특질로서의 ‘신파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영미는 식민지 시대의 신파극을 포함하여 다양한 예술에서 나타나는 ‘신파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독특한 정서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신파성의 특징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세분화하여 설명한다.<sup>23</sup>

〈표 2〉신파의 7가지 특성

- ① 주체의 욕구와 욕망이 세계에 의해 좌절된다.
- ② 주체의 욕구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서민적인 것이다.
- ③ 주체의 욕구와 욕망은 연인, 가족, 친구 등 소공동체나 유사가족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천륜·인륜의 윤리성을 지닌다.
- ④ 주체는 세계에 맞설 의지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약하다.
- ⑤ 주체는 스스로 굴복, 순응하거나, 굴욕적으로 패배한다.
- ⑥ 패배에 따른 고통에 죄의식을 가지고 자학하거나 자기

19 이영미, 앞의 글, 20쪽.

20 이영미, 앞의 책, 58쪽.

21 유민영, 앞의 책, 310쪽.

22 이승희, 앞의 글, 30쪽.

23 이영미, 앞의 책, 17쪽.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⑦ 주로 과잉된 눈물과 탄식, 용서의 구절이나 독백 등으로 드러난다.<sup>24</sup>

위의 표를 기준으로 <겨울연가>를 살펴보면 이 드라마가 지닌 신파적 특징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첫째, “주체의 욕구와 욕망이 세계에 의해 좌절된다”를 살펴보면 준상(민형)을 향한 유진의 욕망과, 유진을 향한 준상(민형)의 욕망이 세상에 의해 좌절된다. 둘째, “주체의 욕구와 욕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서민적인 것이다”를 기준으로 이 작품을 보면 유진과 준상(민형)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매우 서민적이고 보편적인 욕망이다.

셋째, “주체의 욕구와 욕망은 연인, 가족, 친구 등 소공동체나 유사가족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친륜·인륜의 윤리성을 지닌다”의 경우, 유진과 준상(민형)의 욕구와 욕망은 연인뿐 아니라 가족, 친구, 회사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다. 또한 유진과 준상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과 회사 직원들과 유사가족 형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넷째, “주체는 세계에 맞설 의지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약하다”의 경우, 유진과 준상(민형)이 상혁을 위해 헤어진 모습, 어머니의 반대와 친구들의 반대를 이기고 나가지 못한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주체는 스스로 굴복, 순응하거나, 굴욕적으로 패배한다.” 역시 유진과 준상(민형)은 스스로 굴복, 순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확인된다. 준상은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가려고 했고 유진은 준상(민형)을 떠나 상혁과 결혼하려고 했다. 여섯째, “패배에 따른 고통에 죄의식을 가지고 자학하거나 자기 연민의 태도를 갖는다.” 이는 유진이 상혁과 준상(민형) 사이에서 강한 죄의식을 가진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곱째, “주로 과잉된 눈물과 탄식, 용서의 구절이나 독백 등으로 드러난다”는 유진과

준상(민형) 모두 과잉된 눈물, 용서의 구절 등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확인 가능하다.

이영미가 제시한 7가지 특징은 앞서 말한 세 가지 기준에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세 가지 기준을 조금 세밀하게 나눴다고도 볼 수 있다. <겨울연가>는 세 가지 커다란 기준이든, 일곱 가지 세밀한 기준이든 만족시키는 명백한 신파적 작품이다. 또한 <겨울연가>는 명실공히 1세대 한류 작품이기도 하다.

『한국 TV 드라마 50년사』를 보면 <겨울연가>를 국내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흥행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겨울연가>는 엄청난 관광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일본에 있었던 한국에 대한 오래된 안 좋은 선입견도 불식시켰다. 이 드라마가 애초에 한류를 의식하거나 수출을 전제하여 만든 작품도 아니었는데 말이다.<sup>25</sup> 앞서 많은 연구자들이 겨울연가의 일본에서의 인기 요인으로 영상미, 음악, 배우들의 연기 등을 꼽았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인기는 신파와도 연결되어 있다.

일본에 있는 한류 전문가들은 <겨울연가>가 일본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고 말하면서 <겨울연가>의 일본 내 폭발적인 인기에 대해 한국 연구자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에서 접근했다. 이는 <겨울연가>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 하나가 과거 일본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매력과 일치한다고 봤기 때문에 가능한 주장이었다.

과거의 일본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진 매력은 바로 ‘질퍽질퍽한(どろどろ)’ 정서이다. 과거 일본에는 질퍽질퍽한 정서를 주된 논제로 삼는 순애보 이야기가 다수 존재했다.<sup>26</sup> 여기서 질퍽질퍽한 감성은 신파적 감정과 가깝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한류 전문가들은 <겨울연가>가 ‘쇼와 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쇼와 시대란 1926년부터 1989년의 일본을 말하며, 일본의 전

25 신상일·정중환·오명환, 『한국TV드라마 50년사』, 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4, 579~584쪽.

26 김형선, 「일본 내 '한류 드라마'의 이해와 전망: 일본 한류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41~44쪽.

통 예술이 서구와의 접촉으로 변화된 시기를 가리킨다. 주지하다시피 신파극은 일본의 전통 연극인 가부키가 서양의 연극과 만나 생긴 새로운 연극이다. 초창기에는 정치적인 운동과 관련이 있었던 신파극은 일본 정부의 검열을 받아 1900년 대 초부터는 반정부적 성향을 띠지 않도록 바뀌었는데 이때 정치적인 색을 빼고 대중적인 연극으로 변화가 된다. 그때 인기를 끈 것들이 가정 비극, 화류비련극으로 불리는 작품들이다.<sup>27</sup> 이런 작품들이 신파라 불렸고 그 동일한 작품이 한국에 들어왔다.

일본에서 건너온 신파는 처음에는 일본에서처럼 군사극이나 탐정극을 통해 계몽성을 질게 의식한 작품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 같이 점차 가정 비극이나 화류비련극으로 옮겨가는 절차를 밟는다.<sup>28</sup> 이는 일본의 검열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극만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그들이 선택한 연극이 바로 신파극이었다. 일본의 신파나, 그것을 가지고 온 한국의 신파 모두 일본 정부의 검열 속에서 정치적, 계몽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대중적, 통속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근대 연극으로 자기 개발의 가능성을 모두 놓쳐버린 채 관객들의 취향을 쫓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대중극으로 한정되어”<sup>29</sup> 진행됐던 신파극의 운명이었다.

정리하자면 신파극은 일본이나 한국에서 모두 전통적인 연극과 다른 서양의 새로운 연극을 의미하는 뜻에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다양한 극이 시도되었으나 국가 검열로 인해 일본에 안전한 대중적인 극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당시 대중들이 가장 열광했던 것이 바로 가정 비극이나 화류 비극이었다. 결국 <겨울연가>가 ‘쇼와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는 전문가의 말은 <겨울연가>의 신파성이 과거 일본에 있던 신파적 감성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는 말이 된다.

27 김재석, 「한일 신파극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비교연극학적 연구」, 『어문학』 67, 한국어문학회, 1999, 179~184쪽.

28 유민영, 앞의 책, 316~317쪽.

29 김재석, 앞의 글, 184쪽.

언론에서 <겨울연가>의 일본 내 인기 요인으로 신파성을 꼽은 기사는 많지 않다. 하지만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5년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로 ‘신파적 요소’를 언급한 기사가 있었다. 그 기사에서는 신파를 ‘메이드 인 코리아’의 히트상품으로 소개한다.<sup>30</sup> 이를 통해서도 <겨울연가>는 ‘K-신파’의 시작점이 되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통해 <겨울연가>의 일본 내 인기 요인이 ‘신파’적 특징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연가>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 작품 속에서 신파는 계속 발전해 나갔다. 한국 대중들이나 연구자들은 장르 구분 없이 신파 요소를 넣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기도 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풀려고 액션 영화나 코미디를 골랐는데, 왜 항상 막판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강요하나?”가 늘 못마땅 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을 창작하는 한국인들 중 일부는 신파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신에 더 디테일하고 교묘해지는 방법을 택했다. 그 결과 신파적 특성이 덜 억지스럽게 작품에 녹아들 수 있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이나 ‘갯마을 차차차’ 등을 보며 통곡하는 외국인의 모습을 유튜브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그들은 한국의 신파적 요소를 가진 작품을 보면서 가족 친구 동료 이웃까지 살뜰히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한다. 방호정은 신파란 결국 상호 간 깊은 애뜻함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힘들어도 서로 살갑고 사이 좋게 지내자는 메시지가 K-신파에 담겨 있고 세계에 이 메시지에 응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1</sup> 이런 방호정의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그의 주장과 관련된 상황을 <겨울연가>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겨울연가> 방영 이후 바뀐 문화가 있는데

30 신윤동욱, 「신파는 힘이 세다」, 『한겨레21』, 2005.01.14.

31 방호정, 앞의 글.

바로 가족끼리, 특히 부모 자식들이 무언가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다. 일본의 한 공영 방송국 PD는 겨울연가의 팬 악수회에 가보면 일본인 모녀가 다정하게 손잡고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겨울연가>의 방영 전에는 일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겨울연가>가 일본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sup>32</sup> 이는 <겨울연가>에서 나타난 신뢰성이 일본 사회에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정을 포함한 친구나 동료 사이의 유사 가족의 정은 지금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긍정적 정서가 분명하다.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한국인의 정에 반해서 아예 한국에서 살게 됐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된다.<sup>33</sup> 이처럼 한국의 작품들이 외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 역시 한국의 '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정서에 바탕을 둔 작품들이기 때문에 신뢰는 나쁜 것이 아니라 말한다. 제때 적절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다. <스위트홈>, <D.P.>, <킹덤>, <오징어 게임> 등 'K-신파'라 불리는 작품들에는 형제애, 우정, 연민, 배려, 연대 같은 끈끈한 정과 인간애가 농축돼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요소를 두고 신뢰라고 비아냥거리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오히려 대중적 감정선에 따라서 드라마를 통해 삶과 세상을 반추하게 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객관과 절제의 구조적 미학을 소비시키는 콘텐츠가 대부분인 외국에서 'K-신파'는 차별화된 작품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그동안 국내에서는 신뢰가 수준 낮은, 통속적인, 좋지 않은 연극이란 인식이 강했으나 대중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한류 4.0의 시대의 감각으로 다시 살펴보면 신뢰

는 계속 발전해 온 한국 대중문화의 원류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가 해외에 우리 작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좀비물도, 코믹한 장르도 한국이 만들면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름은 정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신뢰에 있다고들 한다. 이제 이런 현상에 맞춰 신뢰에 대한 연구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영미는 신뢰란 억압적 세상의 산물로 신뢰성은 다시 만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신뢰적 울음보다는 복수나 테러, 무지향적인 폭력 같은 방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sup>35</sup> 하지만 전 세계가 'K-신파'에 열광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예측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변화, 발전하면서 점차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

또한 이영미는 “끊임없이 눈물 흘리는 장면들이 이어지다가 급기야 백혈병으로 여주인공이 죽어가는 이야기로까지 몰고 가는 <가을동화>(2000) 같은 드라마”<sup>36</sup>는 신뢰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 나온 슬픔이 식민지 시대의 대중예술에 나타난 과잉된 슬픔의 비극성과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7</sup> 이는 이영미가 규정하는 신뢰로 <겨울연가>에 나타난 신뢰는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는지 몰라도 현재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신파' 작품들을 논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K-신파'에서 이영미가 규정한 7가지를 다 찾아보기는 힘들다. 특히 저항도 못하고 스스로 굴복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진 캐릭터들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다. 그나마 3번째 조건인 “그 욕구·욕망은 연인·가족·친구 등 소공동체·유사가족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욕망으로, 천륜·인륜의 윤리성을 가진 윤리/욕망

32 김형선, 앞의 글, 1쪽.

33 함영훈, 「여행 왔다 8년째 체류..한국인情有 외국인들 반한답니다」, 『해럴드경제』, 2016.04.27.

34 김현식, 앞의 책, 101~104쪽.

35 이영미, 앞의 책, 8~9쪽.

36 위의 책, 10쪽.

37 위의 책, 같은 쪽.

의 성격을 지닌다”<sup>38</sup> 정도가 ‘K-신파’에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신파’ 개념은 언론이나 대중이 말하는 개념과 연구자들이 말하는 개념에서 모두 변화되어 왔다. 학술적인 신파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파의 실제적인 용법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sup>39</sup> 따라서 최근 급부상한 ‘K-신파’라는 단어 사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정리해 보자면, <겨울연가>의 서사에는 7가지 신파적 면모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이 드라마만의 고유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큰 흥행을 이룰 수 있었다. 신파는 강렬한 감정적 요소와 극적인 플롯을 통해 관객의 공감과 감정 이입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드라마 스타일인데 이러한 신파적 요소가 일본 관객들의 감성에 잘 맞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파 자체가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이다. <겨울연가>는 일본 관객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잊고 있었던 신파적 정서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겨울연가> 이후 한국의 신파적 작품들은 일제 강점기 넘어온 신파와 점점 더 거리를 멀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분석할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겨울연가>를 ‘K-신파’의 시작점으로 보고 <겨울연가>에 나타난 신파적 요소들을 분석했다. 먼저 크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보았다. 첫째, “비애(悲哀)의 성격을 지닌 슬픈 정서가 주를 이룬다”의 경우, 이 드라마에서 주로 나타나는 정서가 사적인 욕망의 좌절에서 생

긴 비애임을 확인했다. 둘째, “모순적인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의 경우 여주인공 정유진이 강준상(이민형)을 사랑하면서도 김상혁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여준 장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셋째, “스스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주인공의 행위를 찾아볼 수 있다”의 경우 정유진과 강준상(이민형)이 부모와 친구들의 반대에 스스로 굴복하여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에서 확인이 가능했다.

위의 세 가지 특징 외에도 <겨울연가>의 서사를 살펴보면 일곱 가지 신파적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드라마만의 고유성이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큰 흥행을 이룰 수 있었다.

<겨울연가>는 일제강점기 신파극이 가지고 있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이런 속성에 일본인들이 반응했다. <겨울연가>가 자신들이 잊고 있던 과거의 신파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울연가>는 의도치 않게 1세대 한류 드라마가 될 수 있었다.

<겨울연가> 이후 신파는 계속 세련된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일제 식민지 당시 신파극과는 많이 동떨어졌지만 여전히 가족 중심 주의와 인류애, 정(情)과 같은 인간관계의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많은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신파는 한국만의 특색이 되었고 이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한국적인 특색으로 자리 잡은 신파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8 위의 책, 43쪽.

39 이호걸, 앞의 글, 7~11쪽.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윤은경·김은희, <겨울연가>, 2002.01.14~2002.03.19.

## 2. 단행본 및 논문

김길성, 「방송콘텐츠가 한류문화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사랑이 뭐길래>와 <겨울연가> 드라마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11.

김재선, 「한일 시파극의 형성과 특성에 대한 비교연구학적 연구」, 『어문학』 67, 한국어문학회, 1999.

김현식, 『김현식의 K콘텐츠 혁명』, 미디어앤, 2023.

김형성, 「일본 내 '한류 드라마'의 이해와 전망: 일본 한류전문가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2013.

신상일·정중현·오명환, 『한국TV드라마 50년사』, 한국방송실연자협회, 2014.

유민영, 『한국근대연극사 이론 상권』, 태학사, 2011.

이순진, 「조선 무성영화의 활극성과 공연성에 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8.

이승희, 「기표로서의 시파, 그 역사성의 지형」, 『한국극예술연구』 23, 한국극예술학회, 2006.

이영미, 「시파 양식의, 세상에 대한 태도」, 『대중서사연구』 9(1), 대중서사학회, 2003.

\_\_\_\_\_, 『한국대중예술사, 시파성으로 읽다』, 푸른역사, 2016.

이호걸, 「시파양식 연구: 남성시파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7.

정태일·연정례, 「한국 사회에서 K-culture의 효과」, 『한국과 세계』 6(4), 한국국회학회, 2024.

## 3. 기타 자료

방호정, 「세계를 올리는 'K-시파'의 영향력」, 『국제신문』, 2021.12.01.

신윤동욱, 「시파는 힘이 세다」, 『한겨레21』, 2005.01.14.

이우라, 「시파가 K드라마의 성공 요인」, 『TVCHOSUN 뉴스』, 2023.5.25.

함영훈, 「여행 왔다 8년째 체류..한국인情有 외국인들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2016.04.27.

「K-시파를 왜 좋아할까? 한국식 시파를 맞본 외국인들의 찐 반응」, 스포츠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fq4ndvFKvLw>

## Abstract

## Elements of Shinpa in the First-Generation Korean Wave TV Drama &lt;Winter Sonata&gt;

Kang, Sung-Ae | Kyungmin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TV drama <Winter Sonata> as a representative work marking the beginning of "K-Shinpa" and aims to explore its significance. The study reevaluates the factors that contributed to the popularity of first-generation Korean Wave (Hallyu) dramas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while also examining the ongoing Hallyu phenomenon through the lens of 'Shinpa' from a diachronic standpoint.

The key characteristics of 'Shinpa' melodrama are as follows:

1. A dominant presence of sorrowful emotions with a melancholic tone.
2. Contradictory attitudes and behaviors of characters.
3. Actions of the protagonists that reflect submission and compliance.

All three of these features are evident in <Winter Sonata.>

These melodramatic trai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rama's massive success in Japan. The emotional resonance of melodrama aligned well with the sensibilities of Japanese audiences.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 concept of melodrama itself had been introduced from Japan. <Winter Sonata> reawakened a sense of nostalgia among Japanese viewers by reviving the melodramatic sentiments they had once cherished but had long forgotten.

Domestically, Shinpa has often been viewed in a negative light. However, it is now time to redefine Shinpa as a concept that Korea can proudly present to the world.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to reinterpret first-generation Hallyu works, including melodramatic produc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Shinpa"

**Keywords** first-generation Hallyu, TV drama, <Winter Sonata>, sinpa, K-sinpa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23일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